

# 브룩스, 모든 구종이 손에서 똑같이 나오게 던져라



플로리다  
**TIGERS**  
김여울 기자  
캠ป์를 가다

KIA 타이거즈의 애런 브룩스가 2020시즌 시동을 걸었다.

KIA의 '신입 외국인' 브룩스가 18일(이하 한국시간) 스프링캠프 첫 라이브 피칭에 나섰다.

이날 불펜에서 30여개 정도를 던진 브룩스는 타석에 직접 타자를 세우고 라이브 피칭까지 소화했다.

15개를 던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브룩스는 이어 17구를 더 뿌리면서 실전 감각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20일부터 KIA의 연습경기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투수들은 라이브 피칭을 하면서 마운드 익히기에 나서고 있다.

브룩스는 라이브 피칭이 끝난 후 "좋았다. 처음으로 타자를 상대로 피칭을 하니가 새롭게 느껴졌고 팔과 어깨 힘을 키워가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첫 라이브 피칭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실전'이

스프링캠프 첫 라이브 피칭  
전 구종 같은 속도로 던지기 훈련  
30여개 공 던지며 실전감각 올려

"선수들과 언어 소통 문제 없어  
KIA, 다시 우승으로 이끌고 싶다"

었다. '진짜 경기'에서 타자를 이기기 위한 세밀함에 집중했다.

브룩스는 "타자들이 봤을 때 모든 구종이 손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팔 스윙 스피드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신경 썼다. 그리고 최대한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140km 후반대 공을 던지는 브룩스는 안정적인 제구를 바탕으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투심 패스트볼을 구사한다. 이날도 다양한 구종을 던지며 실전 감각 살리기에 나섰다.

브룩스는 지난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선발과 중간 계투

로 18경기에 출장했던 '빅리거'. 낯선 리그의 낯선 팀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적응은 이미 끝났다.

브룩스는 "한국 팀에서 캠프를 치른 적이 없어 한국 스케줄을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해왔던 것과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익숙하다. 시즌 준비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새 언어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선수들이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줘서 고맙다. 이런 부분은 팀 워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새 팀 분위기는 훌륭하다. 모두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모든 경기에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브룩스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타이틀을 달고 '왕조 재건'에 나서는 윌리엄스 감독의 첫 시즌 성적 키를 쥐고 있는 선수 중 하나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해 오클랜드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브룩스를 눈여겨봤고 KIA 영입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또 KIA가 지난 시즌 외국인 투수 농사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브룩스는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해줘야 한다.

브룩스는 "경기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싶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KIA를 다시 우승으로 이끌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 캠ป์ 덮친 부상 정보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18일 테리스포츠컴플렉스에서 라이브 훈련을 하고 있다.

/플로리다-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창진, 허리 통증으로 첫 귀국... 김기훈·문경찬, 기습 타구에 '십년감수'

실전을 앞둔 KIA 타이거즈 캠프에 '부상'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KIA는 오는 21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연습경기 일정을 시작한다.

본격 경쟁을 앞두고 KIA 선수들은 라이브 훈련을 통해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뜨거워지는 경쟁 분위기 속 '부상'이 캠프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일단 이번 캠프 첫 귀국자가 발생했다. 외야에서 경쟁을 하던 이창진이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15일 귀국에 올랐다.

18일 진행된 라이브 훈련 시간에도 아찔한 장면들

이 연출됐다.

좌완 기대주 김기훈이 라이브 훈련 도중 오선우의 타구에 왼쪽 정강이를 맞으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기훈은 바로 라이브 피칭을 중단한 채 응급 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코칭스태프는 한숨을 돌렸다.

역시 이날 라이브 피칭에 나선 문경찬도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황윤호의 타구가 마운드 쪽으로 강하게 날아가면서 사람들이 시선이 일제히 문경찬에게 향했다. 이번에는 공이 슬쩍 비껴가면서 문경찬은 '괜찮다'라는 사

인을 보낸 뒤 그대로 라이브 피칭을 이어갔다.

라이브에 이어 '진짜 실전'이 시작되면 크고 작은 부상은 불가피하다.

KIA는 20일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논스톱 캠프'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내달 4일까지 휴식일 없이 15차례 연습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무더운 날씨 속 캠프 일정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만큼 부상 없이 캠프를 완주하는 게 선수들의 우선 목표가 됐다.

또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만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수들의 오버페이스도 우려된다. 스프링캠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선수들은 먼저 '부상과의 싸움'을 펼치게 됐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18일 라이브 피칭에서 역투하고 있다.

/플로리다-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기성용, 스페인·미국·카타르 '저울질'

### 이적 놓고 협상 활발... 차기 행선지 이달내 결정할 듯

프로축구 K리그 복귀가 무산된 기성용(31)이 차기 행선지를 두고 스페인·미국, 카타르리그 사이에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기성용의 이적 상황에 정통한 측근은 18일 "기성용 측이 스페인인 카타르, 미국프로축구(MLS)의 여러 팀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달 안에 차기 행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당초 독일과 포르투갈 리그 진출도 염두에 뒀지만, 이들 리그의 이적 마감 시한이 지나면서 차기 행선지는 자연스럽게 스페인과 카타르, 미국으로 좁혀

졌다.

이 측근은 스페인 2부의 SD 우에스카로의 이적이 확정됐다는 국내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느 팀도 결정된 건 없으며 모두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틀 안에 있다"고 말했다.

우에스카는 기성용에게 올 시즌 잔여 3개월만 뛰는 단기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에스카는 비록 2부 리그에 있지만, 현재 4위에 자리해있어 라리가(1부 리그) 승격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일본인 공격수 오카자키 신지가 몸담고 있어 기성

용이 적응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년간 뛰어난 유럽 무대에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우에스카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미국 무대 역시 다섯 살 딸을 둔 아내이자 남편인 기성용에게 교육환경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진 선택지다.

카타르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8시즌 160경기를 소화한 기성용에게 후한 연봉을 약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 후반기로 접어든 기성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잉글랜드 뉴캐슬과 결별한 기성용은 FC서울, 전북 현대와 협상하며 국내 복귀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